

심리치료 및 재활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목공예, 가구제작 기술교육의 효용성 평가 연구

- 인천산재병원 재활전문센터 특수재활요법을 중심으로 -

An Evaluation Study on Effectiveness of Technical Training of  
Woodcraft and Furniture Manufacturing for Improvements in  
Psychotherapy and Rehabilitation Programs

- Focusing on the special rehabilitation therapy in the rehabilitation special center in  
the Incheon Workplace Accident Rehabilitation Hospital -

주저자: 최 기

강원대학교 디자인대학 실내가구디자인학과 부교수

교신저자: 윤봉기

근로복지공단 인천산재병원 재활전문센터 재활치료팀 교사

**Choi ki**

Kangwon university

**Yoon bong-ki**

Incheon Workplace Accident Rehabilitation Hospital

## 1. 서론

-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 2. 목공예, 가구제작 기술의 개요

- 2-1. 목공예, 가구제작의 정의 및 특성
- 2-2. 목공예, 가구제작기술의 활용방법

## 3. 심리치료 및 재활 프로그램의 현황과 역할

- 3-1. 프로그램의 개요 및 종류
- 3-2. 프로그램의 필요성 및 역할
- 3-3. 목공예, 가구제작 기술교육의 연계방법

## 4. 최적화 연구

- 4-1. 목공예, 가구제작 기술교육의 사례연구
- 4-2. 세부 프로그램의 종류 및 교육과정
- 4-3. 설문조사결과 검토 및 분석
- 4-4. 프로그램의 효용성 검증 및 평가

## 5. 결론

- 5-1. 결론
- 5-2. 향후 연구과제

## 참고문헌

## 논문요약

본 연구에서는 목공예/가구제작 기술교육이 장애인의 심리적 불안감 해소와 치료 후 정상적인 사회생활 및 경제활동을 지속하는데 있어서 최적의 심리치료·재활 프로그램이라는 사실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인천산재병원 재활전문센터에서 2010년 6월 현재 재활치료를 받고 있는 장애인 2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목공예/가구제작 기술교육의 학습효과를 측정하였다. 또한 교육수료 후 보유하게 된 목공예/가구제작 기술을 바탕으로 사회복귀 성공,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성공사례를 조사하여 연구의 타당성을 확보하였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장애인의 심리치료·재활 프로그램으로서의 목공예/가구제작 기술교육은 본인의 기술력을 공인받을 수 있는 기회 등이 제공되어 재활에 대한 자신감 회복에 탁월한 효과와 사회적 가치를 지녔음이 증명되었다.

## 주제어

심리치료, 재활치료, 목공예

## Abstract

This study aims to verify the fact that woodcraft and furniture manufacturing technical training is one of optimum psychotherapy and rehabilitation programs for the disabled to continue normal social and economic life after relieving psychological anxiety and undergoing therapy.

To this end, the study conducted a survey of 20 disabled people who are receiving rehabilitation in the Incheon Hospital as of June 2010 to measure their learning effects of woodcraft and furniture manufacturing technical training.

According to the findings, woodcraft and furniture manufacturing technical training provides the disabled with the opportunity to recognize their technical skills officially and have social values and excellent effects in recovery of confidence about rehabilitation.

## Keyword

Psychotherapy, Rehabilitation, Woodcraft

## 1. 서론

###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우리사회에서 선천적 장애인이나 교통사고 또는 산업 재해로 인한 후유 장애인의 심리치료·재활은 '사회 구성원 모두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관점에서 현재보다 더 활성화되어야 바람직하다는 것이 대다수의 생각일 것이다.

장애인이나 사고로 인한 중증환자는 극심한 스트레스와 심리적 불안감에 시달리게 되기 때문에 단순한 신체치료만으로는 그들의 고통과 좌절을 해소시킬 수 없다. 신체치료만을 시술한 후 성급히 치료를 중단한 채 그대로 방치되었을 때, 심한 경우에는 우울증이나 자살을 유발할 수도 있으며, 그것은 곧 큰 사회문제로 대두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장애인이 정상적인 사회생활과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 줄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메디컬투데이 이희정 기자의 인터뷰 기사 '장애인들의 대변인, 박은수 의원을 만나다!'에서 박은수 의원(2010)은 "우리나라 15세 이상 장애인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41.1%에 불과한 실정이며, 인구대비 취업자 비율은 37.7%이다. 장애인 실업률은 8.3%로 2008년 12월 통계청 기준 전체 실업률 3.3%에 비해 약 2.5배 정도 높은 수준이다. 통계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장애인들은 장애로 인해 경제활동 참가가 어려우며, 이러한 현실 때문에 장애인들의 소득(월 평균 181만9천원)은 비장애인들의 소득(월 평균 337만원)의 54%에 불과하다. 전체 장애인 가구 213만7000가구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구는 전체 장애인 가구 수의 18.3%이며, 비장애인가구의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 비율 6.8%에 비해 3배 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했다.

위의 보도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사회계층 간 위화감 해소 및 장애인의 소득 증대를 위해서 다양하고 경쟁력 있는 재활 프로그램의 운영 및 활성화는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이에 본 연구는 현재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재활 프로그램의 하나인 목공예/가구제작 기술교육의 차별화된 경쟁력을 면밀히 검토하였다. 목공예/가구제작은 정상인에 비해 행동반경이 협소한 하체 장애인의 생활패턴에 제한을 받지 않고 전 과정을 단독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제작특성 때문에 상당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또한 섬세한 수공기술을 요구하기 때문에 상체와 손의 감각이 일반인에 비해 월등히 뛰어난 하체 장애인의 강점을 최대한 이끌어 낼 수 있는 최적의 치료 및 재활 프로그램이라고 판단하여 그 가치

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목공예/가구제작 기술교육을 통한 장애인 심리치료 및 재활의 효용성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개별 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교육시스템 확대의 당위성을 제고하는데 있다.

구체적인 연구목표는 우선 목공예/가구제작 기술교육이 장애인의 활동장애 개선 및 치료과정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 해소, 정서적 불안감 극복, 성취감 고취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것을 객관적인 자료조사와 운영 중인 프로그램 성과분석을 바탕으로 검증하는데 있다. 또한 프로그램 참가자를 대상으로 교육 성과를 분석하여 목공예/가구제작 기술교육의 학습 결과가 향후 장애인의 활발한 취업, 성공적인 공방 운영, 명장이나 인간문화재 지위 획득 등 경제적 능력 향상과 사회지위의 획득에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결과적으로 목공예/가구제작 분야가 장애인 심리치료·재활프로그램으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그 효용가치 또한 타 분야에 비해 높다는 것을 장애인과 일반인들에게 인식시켜 주는 것이 궁극적인 연구목적이라 하겠다.

### 1.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본 연구는 인천산재병원 재활전문센터 재활치료과목 중 하나인 목공예/가구제작 기술교육이 하체 장애인이나 교통사고/산업 재해로 인한 하체 후유 장애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을 때 그들이 기술 습득과정에서 만족을 느끼고 있는지의 여부와 심리치료 및 재활훈련에 적합한지를 측정하여 프로그램의 적합성과 가치를 증명하는데 역점을 두고 진행되었다.

연구의 전개는 인천산재병원 재활전문센터 재활치료 팀과 재활학습에 참가하고 있거나 참가한 경험이 있는 장애인 집단을 선정하여 진행하였다. 선행연구과정에서 우선 목공예/가구제작 기술의 개요 및 활용방법에 대하여 문헌조사를 실시하였고, 선정된 인천산재병원 재활전문센터 재활치료과목의 종류 및 활동방법을 조사하여 운영특성을 파악하였다.

선행연구과정에서 얻은 결과를 토대로 연구가설을 수립하였다. 가설내용의 핵심은 "장애인의 심리치료·재활 프로그램으로서의 목공예/가구제작 기술교육은 교육에 참여한 장애인들의 정서적 불안감 해소 및 성취욕구 충족, 사회생활에 대한 자신감 함양 등의 치료효과를 거둠으로써 결과적으로 다양한 경제활동 기회 부여와 목공예/가구제작 분야의 사회적 가치 제고 등 여러 가지 긍정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다."로

요약할 수 있다.

연구가설의 객관적 검증은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통해 진행되었으며, 총 2인(기술교육 참여 장애인)을 인터뷰 대상으로 섭외하였다. 설문조사는 인천산재병원 재활전문센터 재활프로그램을 현재 수강하고 있는 전체인원 118명 중 20인의 장애인집단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조사에 필요한 설문지 문항은 본 연구진이 사전에 실시한 선행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총 12개의 설문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자세한 설문계획 및 과정, 결과는 본문에 기술하였으며, 명확한 결론과 향후 연구과제 도출을 위하여 설문조사는 현재 교육 참여 장애인 중 17%에 해당하는 20명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실시, 결과를 분석하였다.

연구의 객관성과 필요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목공예/가구제작 기술교육 수강 후 관련 산업 및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장애인의 사례를 신문기사나 취재자료를 중심으로 조사하였으며, 조사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사례조사 대상 장애인 선정은 인천산재병원 재활전문센터 재활치료 팀의 협조를 얻어 진행하였다.

연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목공예/가구제작 분야와 장애인 재활프로그램의 연관성을 장애인 기능경기 대회를 토대로 면밀히 분석, 결과를 참고하였고, 목공예/가구제작 디자인을 접목한 재활프로그램 성공사례를 조사, 참고사항을 본 연구에 반영하였다.

## 2. 목공예/가구제작 기술의 개요

### 2.1. 목공예/가구제작의 정의 및 특성

목공예는 그림이나 조각 같은 것에 비해 실용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용예술로서 기능성과 미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차별화된 예술 또는 디자인 분야이다.

목공예는 목재를 이용하여 생활에 필요한 도구나 물건을 만드는 기술과 그러한 기술에 의해 만들어진 물건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넓은 의미의 목공예는 가구제작을 포함하고 있다. 목공예/가구제작에 뛰어난 기술을 보유한 장인을 '소목장'이라고 부르며, 현재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

현재 소목장 박명배 씨가 국가로부터 중요무형문화재 제55호 소목장의 기능보유자로 인정받고 있다. 고려시대부터 불리기 시작한 소목장은 목재로 세간을 만드는 기능보유자를 가리킨다. 소목이란 장롱, 궤·함 등을 비롯하여 문방구 등의 세간과 때로는 나무로 된 각종 물건, 가마, 수레, 농기구, 기타 도구류 등을 포

함하는 것이다.

이러한 소목장을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 전통을 이어가기 위해서 활발한 활동 장려와 함께 후학 양성을 유도하고 있다는 것은 목공예/가구제작 기술의 보존가치가 매우 높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높은 보존가치는 그만큼 목공예/가구제작 분야가 확고한 사회·산업적 위치를 형성하고 있으며, 경제활동의 수단이 될 수 있는 가능성 또한 강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기법	종류	개요 및 특성
조각기법	부조	-평면에 형상을 두드러지게 조각하는 기법 -반입체로 표현 -조각된 깊이, 형상의 높이에 따라 구분 -저부조, 중부조, 고부조로 나뉨
	음각	-부조와 반대로 조각하는 기법 -판재의 평면보다 낮게 조각 -평면부조, 침조라고도 함
	환조	-입체 형태 전부를 표현하는 조각기법 -3차원적인 공간을 형성함 -입체조각이라고도 함
	투조	-형상의 불필요한 공간을 천공하는 조각기법 -부조기법으로 조각함 -부조기법 대비 작업시간이 절약됨
	상감	-바탕재에 음각으로 상감자리를 파서 표현 -상감자리에 다른 목재(재료)를 꼭 맞게 감입 -감입 후 바탕재와 같은 평면으로 깎아냄 -감입법과 부착법이 있음 -부착법은 얇은 판을 붙여서 형태 표현

[표 1] 조각기법의 종류 및 특성을 분류

목공예/가구제작의 대표적인 가공기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으며, 목재를 사용한 조각기법과 짜맞춤기법이 그것이다. 조각기법은 5가지로 나눌 수 있고, 짜맞춤기법은 8가지로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다.

조각기법과 짜맞춤기법은 목공예/가구제작 기술의 핵심이며, 목재의 특성 파악, 도구의 사용방법 습득 등 기초학습과정에서부터 시작하여 단계별 학습에 의해 각 기법별 정해진 공정에 따라 제작기술을 연마해야 한다. 따라서 전문가의 실기지도교육이 필히 요구되며, 절삭도구 사용에 따른 안전사고의 위험 때문에 세심한 주의와 사고방지교육이 꼭 필요한 분야인 것이다.

[표 1]은 조각기법, [표 2]는 짜맞춤기법의 종류 및 특성을 분류하여 설명한 것으로 윤봉기, 김화찬(1996)의 연구결과에 근거한 것이다.

기법	종류	개요 및 특성
짜맞춤 기법	반턱 맞춤	-부재와 부재의 접합부에 두께의 1/2을 따냄 -윗부재와 밑부재가 평편하게 되는 맞춤기법
	홈맞춤	-한 부재의 직각방향으로 홈을 파서 접합 -다른 부재의 면을 홈에 맞게 끼워 맞춤 -부재가 건조에 의한 휨 변형을 방지해 줌
	장부 맞춤	-부재의 한쪽에 장부의 형태를 만들 -다른 부재에 장부 구멍을 천공, 끼워서 맞춤 -가구제작 등 구조물 조립에 많이 쓰임
	연귀 맞춤	-부재의 횡단면을 보통 외곽의 1/3로 깎아 접합 -외모가 아름다우나 내구성이 약함 -못, 아교, 꽃음축 보강이 필요
	사개 맞춤	-강도에 맞게 여러 개의 장을 만들어 접합 -상자, 통짜기, 서랍 조립에 많이 쓰임
	주먹장 맞춤	-사개맞춤과 비슷하나 한쪽방향으로만 분리됨 -남김/연귀/숨은 주먹장맞춤으로 구분
	쪽매 맞춤	-널의 한 면을 평면 또는 축 형태로 제작함 -다른 한 쪽은 홈을 만들어 서로 맞대어 접합
	꽃음축 맞춤	-각각의 면에 꽃음축과 동일한 구멍을 뚫음 -구멍에 꽃음축을 박아 서로 맞춤

[표 2] 조각기법의 종류 및 특성을 분류

조각기법과 짜맞춤기법을 목공예품과 목재가구 제작에 적용하면 다양한 종류의 생활도구와 제품, 예술품을 생산할 수 있으며, 그 방법은 아래의 2.2. 목공예/가구제작기술의 활용방법에서 자세히 소개하였다.

## 2.2. 목공예/가구제작기술의 활용방법

목공예/가구제작은 고도의 기술력과 세심한 주의력, 창의적인 디자인능력이 복합적으로 결합하여 하나의 완성품을 탄생시키는 장인정신에서 출발하였다. 이러한 장인정신은 목공예품과 수공제작 목재가구의 가치와 희소성을 상승시켜 비교적 높은 상품가격의 시장을 형성하게 되었다.

따라서 인천산재병원 재활전문센터 목공예/가구제작 기술교육에 의한 재활치료는 수강 장애인들의 기술력과 주의력, 디자인능력을 배양하여 고부가가치의 목공예품을 생산해 낼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5가지 종류의 조각기법을 활용한 디자인 개발은 주로 실내장식용 액자, 목기류, 서각작품, 다용도 합과 같은 수공의 특성을 살린 일품 공예품 위주로 제안되고 있다. 특히 목재의 고유색이나 변재와 심재의 질감 차이, 자연 그대로의 형태 등을 살려서 조각한 오브제 개념의 실내장식용품 디자인 및 시제품은 일반인들에게 큰 호응을 얻어 인제군목공예조합 소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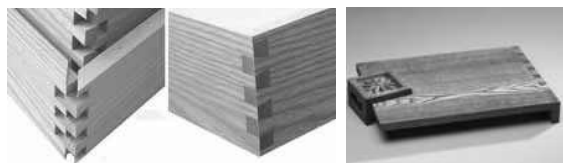
공방에 디자인을 제공, 상품화하는데 성공하였다.

[그림 1]은 2007년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 목공예부문 금메달 수상자인 김민재 씨(인천산재병원 재활전문센터 목공예/가구제작 기술교육 수강)가 조각기법에 의한 목공예품을 제작하는 과정과 완성된 시제품 이미지이며, 네이버카페 [http://cafe.naver.com/hopeday.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653](http://cafe.naver.com/hopeday.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653)(2010. 6. 15 검색)에 근거한 것이다.



[그림 1] 재활전문센터 목공예/가구제작 기술교육 수업과정(좌) 및 완성된 시제품(우) 이미지

짜맞춤기법은 소형 목가구 제작에 주로 사용되며, 못이나 이음쇠를 전혀 쓰지 않고 목재 및 아교 등과 같은 접착제만을 사용하기 때문에 오랜 시간 사용하더라도 뒤틀리거나 할렬(목재 터짐/갈라짐)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림 2] 주먹장맞춤기법의 분해/조립상태(좌)와 적용된 디자인사례 이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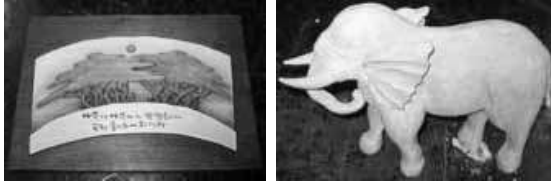
특히 사개맞춤, 장부맞춤과 주먹장맞춤기법은 목재의 종단면과 횡단면의 명도 차에 의해 가구 외형에 맞춤선이 뚜렷하게 보이는 시각적인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찻상, 테이블, 다용도 합, 수납용 가구 등을 제작할 경우 일반적인 상품에 비해 구매유발 효과가 매우 크다. [그림 2]는 주먹장 맞춤기법의 분해/조립상태와 목가구 제작에 적용된 사례 이미지이며, 네이버 블로그 <http://blog.naver.com/k2e3004?Redirect=Log&logNo=110033039436>(2010. 6. 15 검색)와 조원희(2008)의 연구결과에 근거한 것이다.

목공예/가구제작 기술 중 조각기법과 짜맞춤기법의 활용을 통해 목재를 재료로 제작되는 거의 모든 제품 및 공예품을 생산할 수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림 3] 은 인천산재병원 재활전문센터 목공예/가구제작 기술교육 수강 장애인들이 교육과정에서 제작

한 두 종류의 목공예 시제품이다.

목재 조각기법은 비정형, 비대칭의 형태로 된 각종 목재상품 제작에 적합한 제작방법이며, 제품의 기능성보다 심미성이 더 요구되는 목공예품 생산에 주로 쓰이고 있다. 서각, 목기 등은 수공예의 손맛이 그대로 드러나고 양산된 제품에 비해 경제성은 떨어지지만 희소성 측면에서 월등히 앞서기 때문에 조각기법 습득에 의한 제품 개발 유용성은 낮지 않다고 볼 수 있다.



[그림 3] 인천산재병원 재활전문센터 목공예/가구제작 기술교육에 의해 제작된 목공예품 이미지

짜맞춤기법은 정형화되고 대칭 형태를 가진 목공예품 생산에 적합한 방법이다. 조각기법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용설비가 많이 필요하며, 작업공간도 더 확보해야 하는 단점이 있다. 하지만 수공제작(전체공정의 50%이하)과 기계제작(50%이상)을 병행하기 때문에 조각기법에 비해 양산 가능성이 더 높다고 하겠다. 주로 입방체 형태의 제품생산에 적합하며, 장애인 기능경기대회 가구제작부문 출제유형을 살펴보면 수납장이나 책상, 서랍장 등의 디자인이 일반적이다. 짜맞춤의 종류에 따라 다양한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교육을 통한 학습이 필히 요구된다고 하겠다.

### 3. 심리치료·재활프로그램의 현황 및 역할

#### 3.1. 프로그램의 개요 및 종류

2010년 6월 현재, 인천산재병원 재활전문센터 재활치료 팀은 7개 분야의 실기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본 연구과정에서 종합적인 자료 수집 및 설문지 작성을 위해 총 2회에 걸쳐 인천산재병원 재활전문센터 방문조사를 실시하였다.

2009년 11월 27일 실시한 첫 번째 방문에서는 재활치료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는 교육 프로그램의 종류와 현황 및 수업환경을 조사하였다.

조사된 재활치료 팀의 교육프로그램 종류 및 개요는 [표 3]의 내용과 같다.

각 재활교육 프로그램 당 지도교수는 1명이 배정되어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7개의 프로그램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장애인기능경기대회

의 경기직종과 동일하기 때문에 수업과정 이수 후 장애인기능경기대회에 출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2010년 6월16~18일 간 개최된 인천지방장애인기능경기대회 경기장소로 인천산재병원 재활전문센터 재활치료 프로그램 강의실이 사용되고 있다.

프로그램명	개요 및 특성
목조형 디자인	-목공예/가구제작 기술교육 실시 -손의 감각을 강화하고 심리적 안정감 제공 -기능경기대회 출전/수상 등 교육성과 달성
원예 디자인	-꽃꽂이 등 원예 장식기술교육 실시 -프로그램 종류: 꽃다발 만들기, 국화 기르기 등 -원예기능사, 조경기능사 자격증 취득 가능
컴퓨터 실습	-컴퓨터 프로그램 운용기술교육 실시 -컴퓨터를 이용하여 신체잔존능력을 계발 -다양한 프로그램을 활용한 자신감 함양 -인터넷 사용방법, 한글문서 작성요령 교육
멀티 미디어	-컴퓨터를 매개체로 하여 다양한 프로그램 학습 -캐릭터 개발, 애니메이션 제작기술교육 실시 -일러스트, 플래시 등 프로그램 운용방법 교육
전통 공예	-전통공예품 제작을 통한 심리재활, 기능회복, 사회적응 능력의 향상 -도자기 디자인 및 제작과정을 주로 시행 -흙을 만지는 과정에서 감정표현/미세근육 능력 향상
귀금속	-귀금속 디자인/제작기술교육 실시 -재활 후 취미활동/개인공방 운영에 적합한 교육 -완성된 디자인 결과물 상설전시 실시
회화	-수채화, 유화 등 미술품 제작기술교육 실시 -그림그리기를 통한 미술치료 개념의 수업 진행 -미술활동을 통한 교육생 간 상호작용 및 공감으로 인간관계 형성에 도움

[표 3] 인천산재병원 재활전문센터 특수재활요법의 종류 및 개요/특성

두 번째 방문조사는 2010년 6월 16일에 실시되었으며, 목조형디자인 프로그램에 대하여 교육과정 및 사례연구, 설문조사 등을 진행하였고, 자세한 조사결과는 4. 최적화 연구에 기술하였다.

#### 3.2. 프로그램의 필요성 및 역할

심리치료·재활 프로그램으로서 재활치료교육의 필요성 및 역할은 목공예/가구제작 기술교육 프로그램에 한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목조형디자인 프로그램은 수공구(톱, 대패, 끌, 조각칼 등)를 이용한 작업치료의 일환으로 개설/운영되고 있다. 신체 잔존능력을 강화하여 사회복귀에 필요한 재활적응 과정이 될 수 있도록 교육을 진행하는 것이 수업목표이며, 장애인기능경기대회 참가를 위한 훈련 등 다양한 학습동기 유발요소가 복합적으로 잠재되어 있다.

인천산재병원 재활전문센터 교실별 프로그램 소개 (2010)에 따르면 목공예/가구제작 기술교육이 장애인의 심리치료·재활프로그램으로 필요한 가장 큰 이유를 크게 4가지로 구분하여 말하고 있다. 첫째, 환자 재해유형에 맞는 프로그램 적용을 통한 '할 수 있다'는 자신감 고취와 동기부여이다. 둘째, 신체적 잔존능력 극대화를 달성하여 자기개발을 유도하는 것이다. 셋째, 각 단계별 프로그램을 병행하여 후천적 장애를 이겨내고 삶의 의욕증가를 도와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재해로 인한 격리된 상황에서 같은 고통을 가진 환자들과 함께 목공예/가구제작을 배우면서 관계 형성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위의 4가지 필요성은 2차 방문 조사를 실시하면서 만난 목공예/가구제작 기술교육 수강 장애인 2명(이주홍 씨(지체장애 1급)와 임금천 씨(지체장애 1급))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입증되었다. 이주홍 씨의 경우 목공예/가구제작 기술교육에서 얻은 학습효과로 2010년 인천지방장애인기능경기대회 목공예부문 금메달을 수상하였다.

목공예/가구제작 기술교육 프로그램은 대표적인 제작기법인 조각/짜맞춤기법의 작업을 배우면서 심신을 치료하는 작업치료 개념의 재활프로그램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백경학 푸르메 재단 상임이사는 '병원이 단순히 질병을 치료하는 곳이 아니라 환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공급하고 살아가는 방법까지 가르쳐 주는 역할을 한다면, 그리고 실의에 빠진 환자들이 세상을 향해 힘차게 나아갈 수 있게 준비를 하는 곳이라면 가장 이상적인 병원의 모습이 아닐까?' 라고 주장(2008)하고 있다.

위의 주장처럼 목공예/가구제작 기술교육은 작업을 통한 치료와 더불어 치료 후 원활한 사회생활 및 경제활동의 밑바탕이 되는 능력을 키워주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미국에서 본격적인 작업치료가 시작된 1910년, 세계 1차 대전에서 부상을 당하거나 정신적 질환을 동반한 상이용사들에게 가장 먼저 제공된 작업치료법이 '목공예 기술교육'과 '베를 짜기'였다는 역사적 사실은 목공예/가구제작 기술교육의 심리치료·재활효과를 입증하는 것이다.

또한 세계 최고를 자랑하는 스위스 벨리콘 재활병원(Rehaklinik Belikon)에서 운영하고 있는 10개의 프로그램 중 목공예/가구제작 기술교육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도 프로그램의 필요성과 작업치료의 역할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하겠다.

[그림 4] 는 스위스 벨리콘 재활병원의 작업치료프로그램 교육장 전경(좌)과 그곳에서 환자들의 의족을

직접 제작하는 모습(우)이며, 프레시안 백경학 (2007) 기사의 기사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71109193056&Section=\(2010. 6. 15 검색\)](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71109193056&Section=(2010. 6. 15 검색))에 근거한 것이다.

2010년 4월 28일,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 일환으로 근로복지공단과 산재의료원이 통합되었다.

김원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최근 매일경제신문과 인터뷰(2010)에서 "통합 이후 산재의료원을 재활 중심 특성화 병원으로 개선해 스위스의 벨리콘병원(스위스재해보험기금이 운영하는 90년 전통의 세계 최고 재활 전문 의료기관) 수준으로 키우겠다."고 밝혔다. 그는 '재활+치료+직업훈련' 개념의 '윈스톱 서비스'를 산재의료원의 핵심과제로 삼고 구조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림 4] 스위스 벨리콘 재활병원 작업치료 프로그램 교육장(좌)과 작업치료과정(우) 이미지

이러한 '윈스톱 서비스'에 가장 필요하고 적합한 프로그램이 바로 목공예/가구제작 기술교육이며, 목공예/가구제작에 의한 '재활+치료+직업훈련'이 최적의 방법 중 하나라는 연구진의 예측은 2차 방문에서 실시된 설문조사결과를 통해서도 명백히 증명되었다.

### 3.3. 목공예/가구제작 기술교육의 연계방법

그렇다면 이러한 목공예/가구제작 기술과 '재활+치료+직업훈련' 개념의 '윈스톱 서비스'를 연계하여 발전시키는 방법적 모색이 필요할 것이다. 목공예/가구제작은 기술적인 측면에서 고도의 집중력과 세밀한 손 감각을 요구하는 분야이다. 따라서 제작공정에 대한 집중력은 사고 후 스트레스 장애를 잊게 하며, 세밀한 손 감각 강화훈련은 환자의 손상된 신체기능을 회복시킨다. 이러한 재활교육과정을 거쳐 목공예/가구제작 기술이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서면 다양한 방법으로 제작기술을 공인받을 수 있기 때문에 완치 후 목공예/가구제작 분야의 취업 및 창업이 가능하다. 또한 최고난도 수공기술의 연마를 통한 꾸준한 목공예/가구 작품활동을 이어갈 경우 중요무형문화재 '소목장' 지정까지 받을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진은 목공예/가구제작 기술교육의 '원스톱 서비스화'를 실현하기 위한 최적의 방법 중 하나가 '장애인기능경기대회 참가 활성화'라고 판단하였다. [그림 5] 는 2010년 6월 17일에 실시된 인천지방 장애인기능경기대회에 출전하여 경기에 임하고 있는 인천산재병원 재활전문센터 재활치료 팀 목조형디자인과목 수강 장애인들의 모습이다.



[그림 5] 목공예/가구제작 기술교육 수강 장애인들의 2010년 장애인기능경기대회 참가 및 경기모습

장애인기능경기대회 참가 및 수상은 목조형디자인 프로그램 수강 장애인들에게 많은 혜택과 확실한 동기 부여를 제공하여 심리치료·재활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 실제로 인천지방 장애인기능경기대회에서 목공예부문 금메달을 획득한 김민재(39,지체장애 1급)씨는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 출전권을 획득, 전국대회에서도 금메달을 획득하였고, 2007년 국제 장애인기능올림픽에 출전, 금메달의 영예를 안았다.

김민재 씨 이외에도 인천산재병원 재활전문센터 목조형디자인 재활치료 프로그램 수강 장애인들은 매년 장애인기능경기대회 목공예 및 가구제작 부문에 출전하여 많은 수상실적을 올리고 있다. 2010년 인천지방 장애인기능경기대회에서도 목공예부문에서는 금메달을 포함한 3명, 가구제작부문에서는 1명(은메달)의 수상실적을 올렸다.

장애인기능경기대회에서 수상한 장애인들은 목공예/가구제작 기술을 정부로부터 공인받게 되기 때문에 치료 후 사회생활에서 보유한 기술을 토대로 경제활동을 해나가려는 의지를 강하게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산재의료원이 핵심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재활+치료+직업훈련' 개념의 '원스톱 서비스'를 실현하는데 있어 모범적인 사례라 하겠다.

#### 4. 최적화 연구

##### 4.1. 목공예/가구제작 기술교육의 사례연구

목공예/가구제작 기술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선천적 또는 사고로 인한 후유 장애인들에게 '재활+치료+직업훈련' 개념의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다. 조각기법과 짜맞춤기법으

로 나무를 성형하는 과정 속에서 자연적 소재를 이용하여 나무의 개성과 표현력을 이끌어낼 수 있으며, 그것은 곧 자신과의 대화를 통한 심리치료의 단계까지 다다를 수 있다. 또한 숙련된 목공기술의 획득은 작품이나 상품 제작/판매를 가능케 하여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설계할 수 있으며, 직업선택의 기준이 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원스톱 서비스' 확립의 성공사례로써 본 연구진은 장애인 목공예가 김민재(39,지체장애 1급)씨의 재활과정 및 사회복지 후 경제활동을 조사하였다.

그는 27세 때 출근길 통근버스가 대형교통사고를 내면서 크게 다쳤다. 하반신 마비가 되어 휠체어에 의존하게 되었고, 7년 동안 인천산재병원 재활전문센터 목조형디자인 프로그램을 수강하면서 목공예 실력을 연마하였다.

[그림 6]의 좌측 이미지는 월간노동 박인철(2008) *기자의 기사* [http://www.labor21.com/new\\_news\\_view.asp?ca=4300&subCa=4305&num=4261](http://www.labor21.com/new_news_view.asp?ca=4300&subCa=4305&num=4261)(2010. 6. 17 검색)에 근거한 것이다.



[그림 6]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 목공예부문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김민재(39, 지체장애 1급) 씨(좌)와 지도교수(우-오른쪽 첫 번째)

월간노동 최은경 *기자와의 인터뷰*(2008)에서 그는 "갑자기 장애인이 되었을 때 드는 생각이야 다 비슷한 것 아니겠느냐"며 "6개월간 누워만 있다가 앉을 수 있게 되었을 때, 휠체어를 탈 수 있게 됐을 때, 나무를 깎게 됐을 때 점점 힘들었지만 희열감을 느낄 수 있었다."고 말하였다.

나무를 깎고 다듬어서 작품을 만든다는 희열감과 성취감이 자신을 살아가게 하는 것 같다고 말하는 그는 제 6회 국제장애인 기능올림픽(일본)에서 금메달을 획득, 특전으로 상금 1,500만원을 받았으며, 동탑산업훈장을 수여하였다. 또한 청와대 기관선수 초청, 연금 지급(20회), 산업기사 자격증 부여 등의 혜택을 받았고, 2008년 한국교통장애인협회에서 수여하는 '장애인 재활상'을 수상하였다.

목공예가 적성에 맞다는 그는 앞으로 장애인 친구들과 함께 작업할 수 있는 작은 공방을 하나 갖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현재 목공예/가구제작 기술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얻은 지식과 제작능력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김민재 씨의 목공예/가구제작 기술교육을 통한 심리치료·재활효과는 매우 성공적이었으며, 성공의 가장 큰 이유는 근로복지공단 인천산재병원 재활전문센터에 다양한 재활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나무를 만져서 만들기를 좋아하는 김씨의 성향을 정확히 파악하여 그것을 심리치료·재활에 적절히 이용한 목조형디자인 과목 지도교수 및 관계자 분들의 세심한 배려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김민재 씨는 말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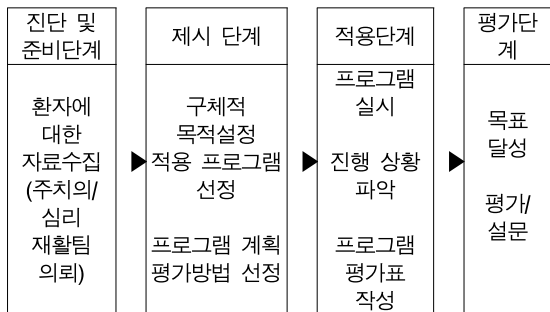
위의 성공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장애인들의 심리치료·재활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활치료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장애인들의 개인 특성과 활동성향을 정확히 분석하여 각자에게 가장 적합한 프로그램을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목공예/가구제작 기술교육 운영은 현재 참여 장애인 대부분이 만족하고 있지만 시설 개선, 지도교수의 충원 및 역할 강화, 관련 대학과의 협력 등을 통한 지원 확대를 통해 수강 장애인들의 교육환경 개선, 기술수준 향상, 치료 후 사회참여 기회 부여를 현재보다 더 향상시켜야 할 것이다.

#### 4.2. 세부 프로그램의 종류 및 교육과정

2010년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인천산재병원 재활전문센터 재활치료 팀 목조형디자인과목의 운영현황 및 세부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목공예/가구제작 분야 전문가인 지도교수 1명이 교육 및 운영을 담당하고 있으며, 2가지 교육목적으로 구분하여 세부프로그램이 실시되고 있다. 프로그램은 총 4단계로 구분되어 진행되고 있으며, 주 5회 이론 및 실습과정 수업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표 4] 목조형디자인 수업 진행단계 현황

[표 4]는 프로그램의 진행단계별 주요내용 및 지도교수의 역할과 수업목표 등을 설명한 것이며, '인천산재병원 재활전문센터 목조형디자인교실 프로그램 소개'(2010)에 근거한 것이다.

첫 번째, 진단 및 준비단계에서는 환자에게 목공예/가구제작 기술교육이 적합한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서 본인의 참여의사와는 별도로 지도교수가 개인의 성향과 신체 잔존기능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수업참여를 결정하게 된다. 두 번째, 제시 단계에서는 심리치료·재활효과를 고려한 최적의 세부 프로그램을 선정하고 수업의 방향과 목표를 설정한다. 세 번째, 적용단계에서는 개인의 능력에 따라 맞춤형 기술교육을 실시하며, 마지막으로 평가단계에서는 수업목표 달성 여부 확인 및 수강생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 결과 분석 후 피드백을 시행한다.

위와 같은 교육 진행단계에 의해 2010년 교육이 실시되고 있는 세부 프로그램은 첫 번째, 심리재활중심의 7과제와 두 번째, 기능회복·사회적응을 위한 5과제 등 총 12과제가 있다.

세부 프로그램의 종류 및 특성은 [표 5]와 같으며, '인천산재병원 재활전문센터 목조형디자인교실 프로그램 소개'(2010)에 근거한 것이다.

구분	목적	대상	기간	주요내용
심리재활중심	심리적 안정 정신적 회복	척수손상 근골격계 뇌손상	3개월 (12주)	자기 얼굴 표현하기 가족 문패 조각하기 동, 식물 퍼즐 만들기 선물용 벽걸이 만들기 퍼즐 만들기 자유 작품만 들기 창작 작품만 들기
기능회복·사회적응	신체적 잔존능력개발 신체적응력향상 기능향상	척수손상 근골격계 뇌손상	6-12 개월	사물표현하기 색채 표현 동, 식물 조각하기 생활용품 만들기 창작 작품 만들기

[표 5] 목조형디자인과목 세부 프로그램의 종류/특성

각각의 프로그램은 난이도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선수과정으로 안전사고 예방교육과 공구사용법 및 연마방법, 조각기법과 짜맞춤기법의 이론 및 시연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다수의 수강 장애인을 대상으로 위의 과정들을 지도교수 1명이 모두 담당하여 교육하는 것은 교육의 질과 안전사고의 위험성 측면에서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점이라 하겠다. 장애인고용촉진법에 근거하더라도 장애인 10명 당 지도교수 1명이 배치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도교수 충원문제는 향후 정부 및 관련기관의 긍정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 4.3. 설문조사 결과 검토/분석

심리치료·재활 프로그램으로서의 목공예/가구제작 기술교육의 효용성 평가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재활치료에 전념하고 있는 장애인들이 '목공예/가구제작 기술교육이 심리·재활치료에 적합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나?'는 것이다. 또한 적합하다면 어느 정도인지, 지금의 교육에 만족하고 있는지, 개선되어야 할 점은 무엇인지를 명확히 파악하여 객관적으로 그 필요성을 검증해야 한다.

본 연구진은 앞서 “장애인의 심리치료·재활 프로그램으로서의 목공예/가구제작 기술교육은 교육에 참여한 장애인들의 정서적 불안감 해소 및 성취욕구 충족, 사회생활에 대한 자신감 함양 등의 치료효과를 거둠으로써 결과적으로 다양한 경제활동 기회 부여와 목공예/가구제작 분야의 사회적 가치 제고 등 여러 가지 긍정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다.”라는 연구가설을 수립하였으며, 선행연구를 통해 심리치료·재활 프로그램으로서의 목공예/가구제작 기술교육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이러한 주장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해서 본 연구진은 현재 인천산재병원 재활전문센터에서 재활치료를 받고 있는 장애인 총 118명 중 20명(17%)을 대상으로 총 12문항의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설문결과는 아래의 [표 6]의 내용과 같다.

설문내용	설문결과	형태
1. 나이/성별	-평균연령: 40.3세 -남: 18명/여: 2명	단답식
2. 장애유형	-지체장애1급: 17명 -지체장애2급: 1명 -지체장애3급: 2명	단답식
3. 재활치료의 필요성 유무	-필요함: 100%(20명) -필요없음: 0%(0명)	선택식
4. 재활치료의 필요이유	-심리안정에 도움: 35%(7명) -사회복귀에 필요: 20%(4명) -신체잔존기능 강화: 40%(8명) -기타: 5%(1명)	선택식
5. 재활치료 후 나아진 점	-심리적 안정: 30%(6명) -집중력 강화: 5%(1명) -자신감 고취: 50%(10명) -여가시간 활용: 10%(2명) -기타: 5%(1명)	선택식
6. 재활치료과목 선호도 (2개 선택)	-귀금속디자인: 5%(1명) -도자기공예: 10%(2명) -멀티미디어: 10%(2명) -목조형디자인: 100%(20명) -원예디자인: 25%(5명) -컴퓨터: 20%(4명) -회화: 30%(6명)	선택식

7. 타 과목 대비 목조형디자인 과목의 장점	-자연재료 가공/제작: 25%(5명) -손 감각/기능 회복: 15%(3명) -심리적 안정: 20%(4명) -자기개발 가능: 40%(8명)	선택식
8. 목조형디자인 제작기법의 선호도	-부조: 55%(11명) -환조: 20%(4명) -짜맞춤기법: 20%(4명) -기타: 5%(1명)	선택식
9. 목조형디자인 지도교수의 역할	-안전사고 예방: 5%(1명) -이론/제작방법 강의: 30%(6명) -고난도 기술 전수: 15%(3명) -자격증 취득, 기능경기대회 준비/조언: 35%(7명) -사회활동 기회제공: 15%(3명)	선택식
10. 목조형디자인 지도교수의 적정인원	-1명이 적당함: 15%(3명) -2명이 적당함: 80%(16명) -3명이 적당함: 5%(1명)	선택식
11. 목조형디자인 과목의 개선점	-협소한 작업 공간: 50%(10명) -재료 및 설비 부족: 10%(2명) -지도교수 부족: 15%(3명) -작업대 노후: 20%(4명) -기타: 5%(1명)	선택식
12. 수업과 관련한 건의사항	-병원 측에 건의사항 ·공간 부족·기계실/실습실 간 거리 차가 큼 ·도장실 설치 필요 등 -지도교수에게 건의사항 ·실습 시 조교 필요 ·제도수업 강화 등	서술식

[표 6] 목조형디자인과목 심리/재활치료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설문조사 및 결과 현황

설문결과에 의하면 본 연구진이 제시한 연구가설의 타당성은 매우 높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 설문에 참여한 인원 중 85%(17명)가 심각한 장애를 가진 지체장애 1급 장애인이었기 때문에 설문결과의 적정성은 확보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설문대상자의 평균연령은 40.3세였으며, 그 중 30대가 절반인 50%(10명)을 차지하고 있다.

재활치료의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 전원이 '필요하다(100%)'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그 필요이유로 '신체 잔존기능의 강화(40%)' 및 '심리적 안정(35%)'을 가장 많이 꼽았다. 재활치료 후 나아진 점은 '자신감 고취(50%)'가 절반이었으며, '심리적 안정(30%)'과 '여가시간 활용(10%)'의 순으로 나타났다.

인천산재병원 재활전문센터 재활치료 팀에 현재 개설/운영되고 있는 7개 과목 재활프로그램에 대한 선호도 조사는 1인 당 2개의 선호과목을 선택하도록 설문 문항을 구성하였으며, 설문결과 목조형디자인 과목에 대한 선호도는 100%로 가장 높았다. 회화과목이 30%, 컴퓨터 과목이 20%의 선호도를 나타내어 목조형디자인 과목과는 많은 차이를 보였다.

타 프로그램 대비 목조형디자인 과목의 장점으로 는 자격증 취득, 기능경기대회 참가 등을 통한 자기개발이 가능한 점(40%)을 가장 많이 꼽았으며, '자연 재료인 목재를 사용하여 여러 가지 기법으로 무엇인가를 만드는 것이 재미있다.'는 의견이 25%, '제작과정에 집중해야 하는 목공예/가구제작 기술의 특성상 심리적 안정을 꾀할 수 있다.'는 의견이 20%, '손 감각과 신체기능 회복이 빠르다.'는 답변이 15%로 나타났다. 여러 가지 목공예/가구제작기법에 대한 선호도 조사에서는 비교적 작업이 손쉬운 부조기법(55%)을 가장 좋아했으며, 가구제작에 많이 사용되는 짜맞춤기법은 20%의 인원이 선호하였다.

마지막으로 목조형디자인 과목에서 목공예/가구제작 기술교육을 수강하는데 있어 병원 측과 지도교수에게 바라고 싶은 점을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병원 측에 대한 요구사항은 공간부족문제 해결을 바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으며, 실기실과 기계공작실 간 거리가 멀어 불편한 점을 해결해달라는 요구가 다음 순이었다. 도장실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 등 많은 건의가 있었다.

지도교수에게는 실습 시 조교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제도수업 강화 요구, 교수님과 함께 작업할 시간을 더 늘려달라는 건의 등 희망사항이 한 가지로 집중되지 않고 다양하였다.

설문결과를 분석해 보면 장애정도가 심한 사람들이 의외로 고난도의 기술을 요구하는 목공예/가구제작 분야에 상당한 관심과 교육 참여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목공예/가구제작 기술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에 대해 상당한 치료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며, 향후 교육기회의 확대와 다양한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체계화된 시스템을 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진은 이러한 설문분석 결과가 반영된 목공예/가구제작 기술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효용성 재평가가 반드시 이루어져한다고 판단하며, 교육환경의 개선 및 더 많은 실습 공간 확보, 지도교수의 충원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 4.4. 프로그램의 효용성 검증 및 평가

목공예/가구제작 기술교육이 장애인들의 심리치료·재활, 완치 후 사회복귀 및 경제활동에 대한 자신감을 강화시키는데 있어 매우 긍정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연구과정에서 충분히 검증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특히, 설문조사에 참여한 20명 중 연령대가 30대인

인원이 전체의 50%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사고로 인한 후유 장애인 대부분이 사회생활과 경제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목공예/가구제작 기술교육을 통한 심리치료·재활 프로그램의 운영 및 선진시스템 구축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하겠다.

또한 목공예/가구제작 기술교육 프로그램을 수강한 후 나아진 점에 대한 설문결과를 자세히 살펴보면 교육 수료 후 장애인들의 80%가 자신감 회복과 심리적 안정을 찾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심리치료·재활 프로그램으로서의 목공예/가구제작 기술교육의 가치는 무한한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싶다.

마지막으로 목공예/가구제작 기술교육이 타 분야 프로그램에 비해 왜 장애인들에게 높은 선호도를 보이는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앞서 언급한 김민재 씨와 같은 성공사례들이 장애인들에게 전파됨으로써 그들에게 재활 후 사회복귀에 대한 희망을 키워주는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다.

7번 문항의 설문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장애인들이 자격증 취득, 기능경기대회 입상 등 목공예/가구제작 기술교육을 통한 자기개발 기회가 더 많기 때문에 목조형디자인 과목을 선호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이전의 성공사례에 자신의 미래를 오버랩(Overlap)하여 재활의지를 구체화시키는 결과라고 본 연구진은 판단하였다.

따라서 목공예/가구제작 기술교육은 집중할 수 있는 인생목표가 구체화되기 때문에 심리치료효과 면에서 경쟁력을 갖는 것이며, 감각의 회복과 신체 잔존기능의 강화에 의해 재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기 때문에 재활치료 효과를 높일 수 있고, 치료 후 사회진출 시 공인된 기술 보유 및 활용에 의한 원활한 경제활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회적 치료효과까지 갖게 되는 것이다.

## 5. 결론

### 5.1. 결론

목공예/가구제작은 정상적인 신체기능을 가진 일반인들이 습득하기에도 많은 학습이 요구되는 고난도의 기술 분야이다. 그렇기 때문에 신체 일부 기능이 손상된 장애인들이 교육받기에는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본 연구과정에서 증명되었듯이 고난도의 목공예/가구제작기술이 집중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오히려 장애인들이 하나의 일에 몰두할 수 있고, 완벽히 체득하였을 경우, 고난도 기술의 특

성 상 그것에 대한 성취감은 배가될 수 있다. 따라서 일에 대한 집중은 잡념이나 좌절감을 감소시켜 심리적 안정을 취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되며, 차별화된 기술 보유는 자신감을 불러일으켜 향후 새로운 직업 개발에 밑거름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심리치료·재활프로그램의 수준은 유럽의 선진국에 비해 아직도 개선해야 할 점이 많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목공예/가구제작 기술교육 프로그램이 장애인 재활에 많은 장점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아직 전국적으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일부지역에 제한,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의 장애인 처우 개선 및 생산적 활동 지원 시스템이 얼마나 열악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라 하겠다.

사고에 의해 인체기능을 손상한 장애인들에게 사회복귀 의지 제고와 일반인에 대한 열등의식을 감쇄시켜 주기 위해서라도 본 연구에서 확인된 심리치료·재활 프로그램으로서의 목공예/가구제작 기술교육의 효용성을 더욱 강화해야 하며,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새로운 계획들이 수립, 실천되어야 할 것이다.

## 5.2. 향후 연구과제

장애인 목공예/가구제작 기술교육은 향후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연구대상을 국내최고 수준의 시설이라 할 수 있는 인천산재병원 재활전문센터로 선정하여 진행해 나가고자 한다.

우선 설문조사 결과에 근거하여 교육과정 상 필요한 하드웨어 시스템의 개선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연구방향으로 설정하고자 한다. 스위스 벨리콘 재활병원이나 독일의 회엔리트 재활병원 (Hoehenried am Starnbergersee)과 같은 성공사례를 면밀히 검토하여 실습실 환경 개선과 첨단 목공 공작설비의 운용시스템 개발 등을 위한 현실적인 개선방안을 수립, 제발할 예정이다 있다.

또한 지도교수 확보 방안과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등과 같은 교육과정 상의 개선안을 연구하여 심리치료·재활을 위해 목공예/가구제작 기술교육에 참여한 장애인들이 지금보다 단기간에 과정을 수료하고 다양한 기술체험을 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할 계획에 있다.

## 참고문헌

- 고재만, '스위스 벨리콘처럼 산재의료원 키우겠다', 매일경제, <http://news.mk.co.kr/outside/view.php?year=2010&no=211076>, 2010. 6. 13 검색.
- 김한희, 이은오, 조황기.(1991). '가구제작 및 목공예', 서울: 일진사.
- 백경학.(2007). '치료뿐 아니라 인생설계까지 책임지는 재활병원', 프레시안,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71109193056&Section=](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71109193056&Section=), 2010. 6. 15 검색.
- 윤봉기.(2010). '인천산재병원 재활전문센터 목조형디자인교실 프로그램 소개', 근로복지공단.
- 윤봉기, 김화찬.(1996). '목재료 및 공작', 서울: 한국산업인력공단.
- 이희정, '장애인들의 대변인, 박은수 의원을 만나다!', 메디컬투데이,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129590> 2010. 6. 15 검색.
- 정희석.(2004). '목재와 인류생활',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 최은경, '내 작품 만드는데 희열 느껴', 월간노동, [http://www.labor21.com/new\\_news\\_view.asp?ca=4300&subCa=4305&num=4261](http://www.labor21.com/new_news_view.asp?ca=4300&subCa=4305&num=4261), 2010. 6. 17 검색.
- 한국미술연구소.(2004). '디자인? 디자인!', 서울: (주)시공사.
- <http://blog.naver.com/k2e3004?Redirect=Log&logNo=110033039436>, 2010. 6. 15 검색.
- [http://cafe.naver.com/hopeday.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653](http://cafe.naver.com/hopeday.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653), 2010. 6. 15 검색.